

3.3㎡당 1160만→1632만→2367만→2375만원 광주 아파트 분양가 한달새 3번 경신

고분양가 서구 이어 남구로 확산
건설사 분양가 줄임상 우려
6가구 중 1가구 외지인 소유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3주일만에 또 다시 경신했다. 이번에는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엠비지'다. 3.3㎡당 2375만원이다. 한 달 새 3차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주 고분양가의 주범은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다. 지난달 24일 견본주택을 선보이며 분양에 들어간 이 아파트는 3.3㎡당 평균 1632만원이었다. 5월말 기준 광주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16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3㎡당 472만원이나 높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뒤 5월31

일, 서구 농성동에 선보인 '빌리브 트레비체'는 이보다 145% 가격을 올린 2367만원에 내렸다. 고분양가는 서구에 이어 남구로 확산됐다. 봉선동 '남양휴튼 엠비지'다. 지난 21일 공개한 공급가격을 보면 이 아파트는 133㎡(40평) 기준층 9억5007만원, 17층 옥탑층 12억3946만원이다. 172㎡(52평) 기준층은 12억3529만원, 옥탑층은 16억1176만원이다. 3.3㎡당 평균 2375만원이다. 3주 사이에 다시 3.3㎡당 8만원이 오른 것이다.

광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서울 '큰손'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은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투자가 가능한 광주·대구·대전 등으로 투자가본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연도별·유형별 아파트거래

현황을 보면 서울 사람이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한 건 수가 2016년 669호에서 2017년 734호, 2018년 794호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5월까지 195건이다. 올해 들어 서울 사람들이 구입한 광주 아파트 매입지역을 보면 광산구가 52호로 가장 많다. 이어 북구 51호, 서구 49호, 남구 26호, 동구 17호 순이다. 산단 조성과 지하철2호선 개발 호재가 겹친 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 사람이 광주 아파트를 거래한 건 수는 같은 기간 5263호, 6897호, 7426호였다. 올해 들어 2111호가 거래됐다.

이는 외지인들이 광주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비율은 16.4%(5932호), 15.7%(7631호), 16.2%(8220호), 16.0%(2306호) 수준이다. 광주 아파트 6가구당

1가구는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의미다.

거래의 상당수가 분양권전매였다. 같은 기간 분양권전매 건 수는 5471호, 7952호, 8984호, 올해 들어 1448호다. 외부 투기성 자본이 광주에 상륙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전매 방식으로 뺐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제약이 없는 광주·대구·대전 등으로 서울 자본이 몰리고 있다"면서 "광주는 노후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탓에 갈 곳 없는 서울 자본이 투기대상으로 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달 27일 은행권 공동상품으로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에 대해서 금리우대를 반영한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을 성황리에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10여일만에 46건, 14억을 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는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공부상(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

는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원이하면 임대차 계약이던 된다.

이번 특판대출의 금리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2.76%부터 최고 연 3.19%, 월세자금대출 최저 연 2.65%부터 최고 연 2.91%(변동금리 2019.06.21 기준)이며, 기존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정찬광 광주은행 부행장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으로 목돈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상생경영에 앞장서겠다"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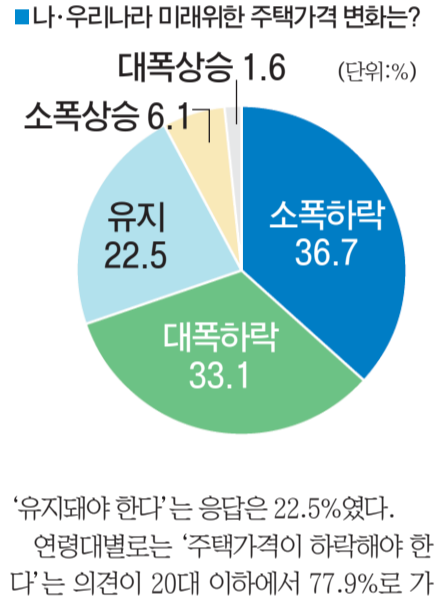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7명 "국가 미래 위해 집값 내려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값이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나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8%가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답했다.

33.1%는 '대폭 하락해야 한다', 36.7%는 '소폭 하락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승해야 한다'는 대답은 7.7%(소폭 상승 6.1%, 대폭 상승 1.6%)에 불과했고,



장 높았고, 50대(72.3%), 40대(70.9%), 30대(69.2%), 60대 이상(61.7%) 순이었다. 혼인 상태별로는 '집값이 내려야 한다'고 여기는 비율이 미혼(76.4%)이 높고 기혼(68.2%), 이혼·사별(59.2%) 순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층(75%)에서 중하층(73.5%), 중간층(67.5%), 중상층(64.6%), 상층(57.8%)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25일~7월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남자 990명, 여자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미국 생활가전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3년 연속 1위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생활가전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12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래클라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생활가전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금액 기준 19.9%를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냉장고가 효자 품목이었다. '패밀리 허브', '푸드쇼케이스'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22.3%로 점유율 1위를 지켰다. 특히, 주력 제품인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30.3%의 점유율로 39분기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덕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19.0%로 선두에 올랐다. 세탁기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4%였고, 이 중 드럼세탁기 점유율은 31%로 2위 업체와 10%포인트 가까이 차이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



캠코, 광주·전남·제주 세무공무원 초청 합동 간담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홍창의)는 지난 21일 광주전남본부 사옥 7층 강당에서 체납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시, 전남도, 제주도 산하 세무공무원 70여명을 초청해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제주지역 세무서, 광역자치단체와 캠코 간 체납 징수업무에 대한 노하우 공유, 압류재산 공매를 통한 국세·지방세 수입 증

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홍창의 캠코 광주전남본부장은 "캠코는 지난 30년 이상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체납압류재산의 다양한 공매정보 제공과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무서 및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지속적 업무 교류를 통해 조세행정 발전과 세수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7~9월 7673가구 집들이

광주 3103가구, 전남 4570가구
광주·전남 7~9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가 3103가구, 전남이 4570가구다. 광주는 실거주자 위주의 공공주택이 많다.

전체 입주 물량이 절반 이상인 1589가

구(51.2%)가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이다. 시기별로는 7월에 물량이 많다. 동구 용산동에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528가구와 모아엘가 570가구가 입주한다. 북구에서는 광주역 행복주택 700가구와 유탄유블레스 스카이뷰 102가구가, 광산구에서는 광주우산 행복주택 361가구가 이삿짐을 나른다.

9월에는 서구 농성동 SK뷰 센트럴 842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전남지역은 7월 목포·영암·해남 3개 단지에 2044가구가 새 집으로 들어온다.

8월에는 목포·순천·여수 등 3개 단지, 2058가구가, 9월에는 해남 코아루 1·2단지과 센트럴파크 등 3개 단지 468가구가 입주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6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7	10	13	25	36	32
등위	당첨금액(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16,553,637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9,172,110	64			
3	5개 숫자일치	1,275,645	2,467			
4	4개 숫자일치	50,000	122,913			
5	3개 숫자일치	5,000	1,957,675			

그린공 알로에

그린공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공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